

최근 경제성장의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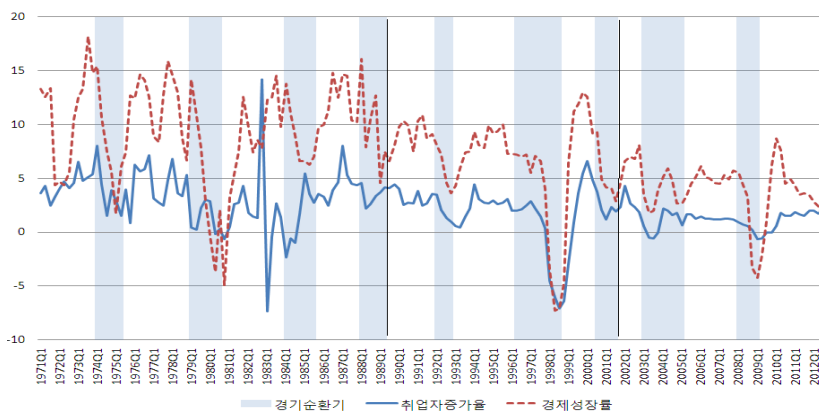
- 업종별 분석 -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 실질GDP성장률과 전체 취업자증가율은 전통적으로 장기동행하지만 최근 들어 그 변동폭이 작아진 반면, 관성(지속성)이 강해진 양상이며 양 변수 간의 연계성도 변화
 - 양 변수 간 이동상관계수는 2008년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
 - 다변량 시계열모형의 충격반응함수(IRF)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경제성장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반응을 살펴보면, 단기적 반응정도가 1/2 가량 축소된 것으로 보임

[그림 1] 실질GDP성장률 및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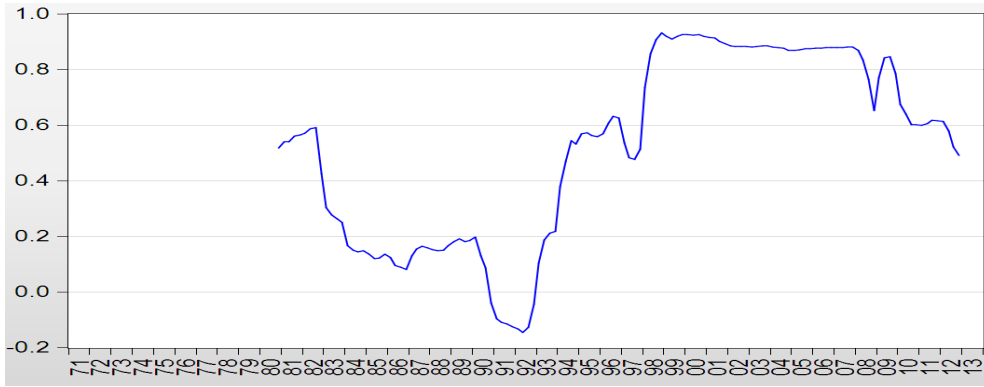


주: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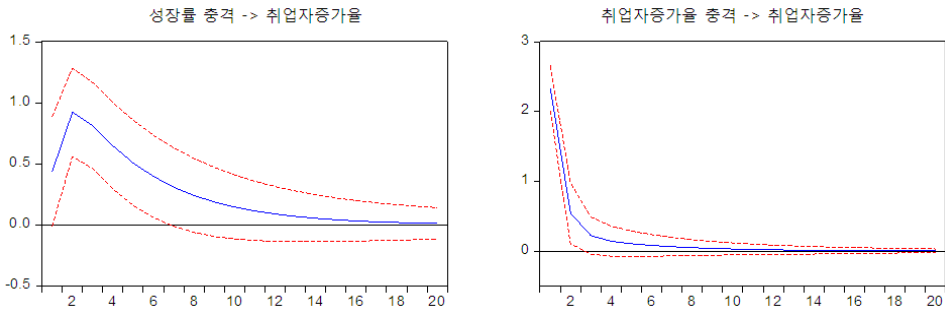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이동상관계수

(단위: %)



[그림 3] 각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반응 : 외환위기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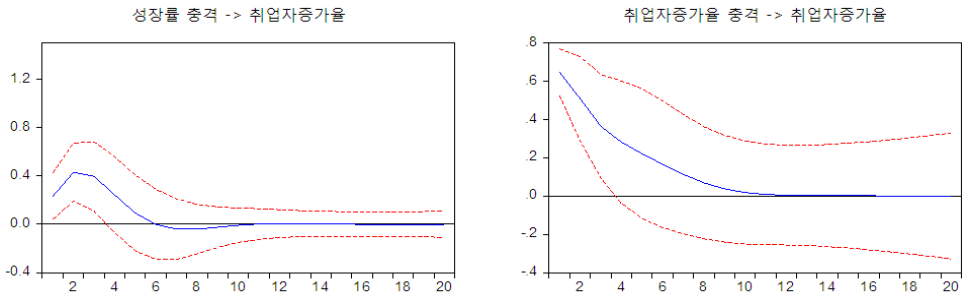
(단위: %p)



주: 점선은 ± 2 표준오차 구간임.

[그림 4] 각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반응 : 외환위기 이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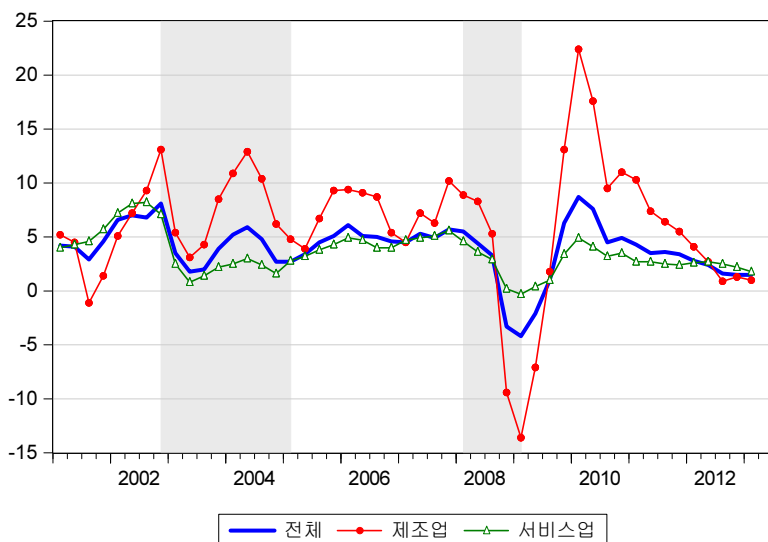


주: 점선은 ± 2 표준오차 구간임.

- ◎ 이러한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으로 세분하여 GDP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
 - 제조업·서비스업 GDP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은 경제전반의 GDP성장률과 동태적 특성이 다름
 - 제조업·서비스업 성장률은 외환위기 말까지는 대략 진폭이 비슷했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성장률의 수준과 진폭이 전체 GDP성장률을 지배함
 - 내수 위축으로 인한 2003년 순환기 중에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보다 빠르게 떨어졌으며 외부충격으로 인한 2008년 순환기 중에는 제조업이 GDP 하락을 주도
 - 제조업의 경우 2000년대 대부분 (-) 취업자증가율을 보이고 서비스업은 2%대의 (+) 취업자증가율을 이어 오는 등 취업자의 부호는 다르지만 등락은 대체적으로 동행해 옴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증가율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

[그림 5] 부문별 실질GDP성장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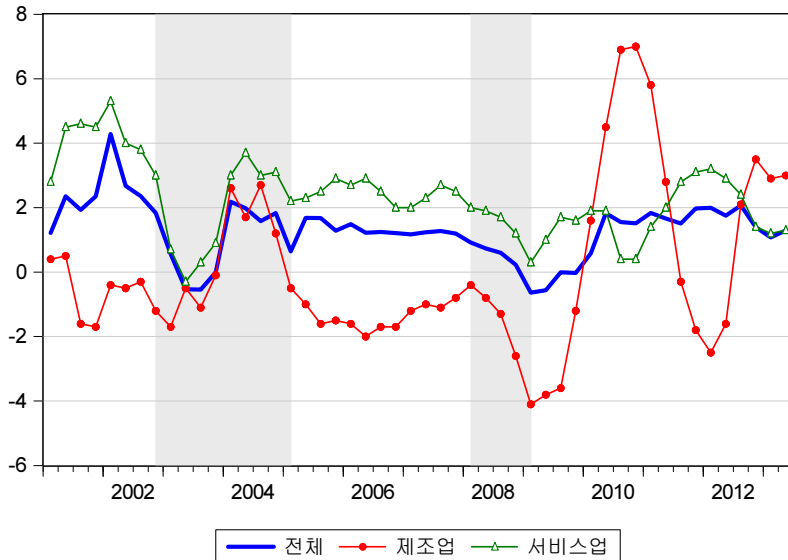


주 :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6] 부문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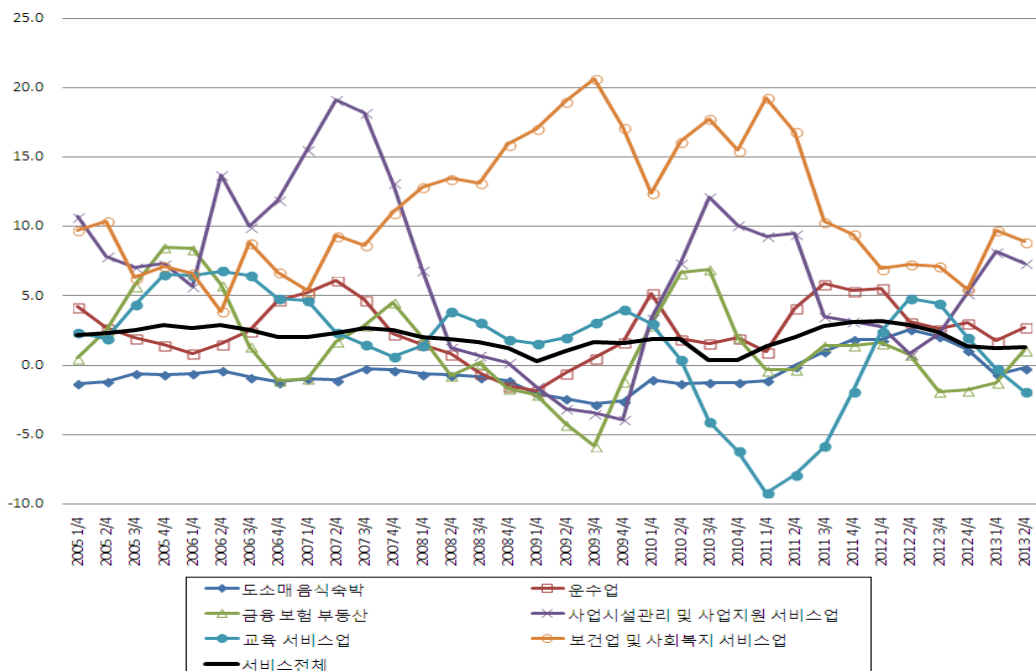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서비스업의 전반적 취업자증가율은 특정 산업이 주도하지 않음

-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과 가장 유사하게 변화하는 세부산업은 취업자비중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 등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과 무관하게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이며, 사업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은 제조업의 경제·고용 실적과 보다 밀접하게 변화함
- 결국 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이 2010년 이후 경제성장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 내의 특정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림 7] 각 서비스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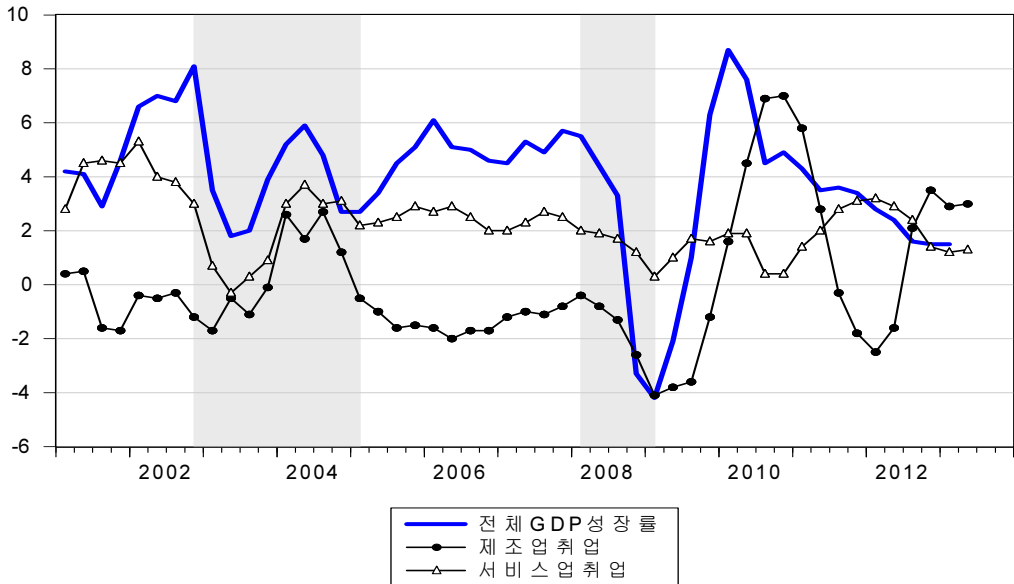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서비스업의 고용·성장 연계성 약화

- 2003년 순환기 당시 서비스업의 취업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더욱 밀접하게 움직였으나 2008년 순환기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의 대부분이 경제성장률로 인해 설명됨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취업자증가율의 동행성이 떨어진 것은 결국 서비스업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계가 약화된 영향일 가능성

[그림 8]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 ◎ 서비스업 GDP 성장에 대해서도 취업자증가율의 고용·성장 연계성 약화
 - 제조업의 경우 2000~2008년 중 7%대의 산업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감소가 일어난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업자증가율의 감소폭이 산업성장률 하락만큼 크지 않았으며 회복기 중 상당한 취업자증가율을 보임
 - 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내수 위축의 타격이 그대로 취업자증가율에 반영되고 이후 2000년대 대부분의 시점에서 산업성장률과 등락을 함께 하는 등 성장률과의 연계가 밀접한 편이었으나 2010년 이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연계성이 약화됨

[그림 9] 부문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좌: 제조업/우: 서비스업)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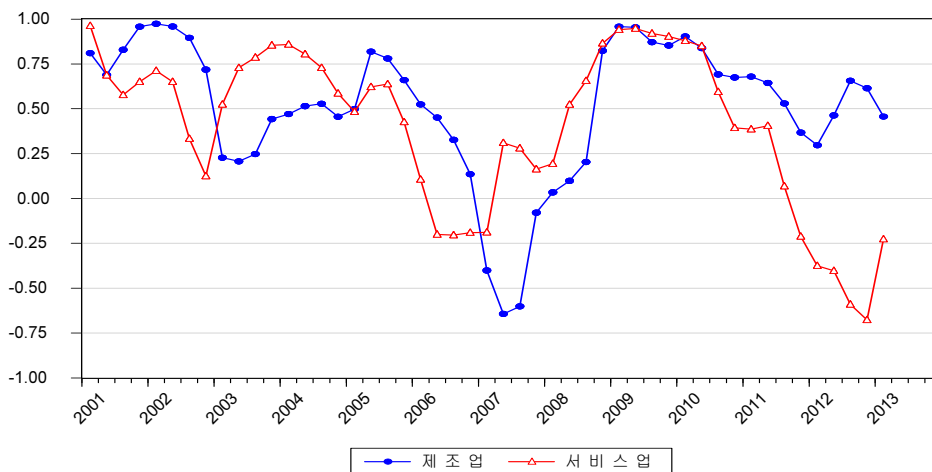
주: 음영구간은 통계청 순환일 기준 경기하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 고용·성장 간 상관관계 최근 3년간 변화

-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부문별로 산업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이동상관계수(10분기 단위)를 구해 보면, 최근 3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성장·고용 연계의 괴리가 심화

[그림 10] 부문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 이동상관계수(좌: 제조업/우: 서비스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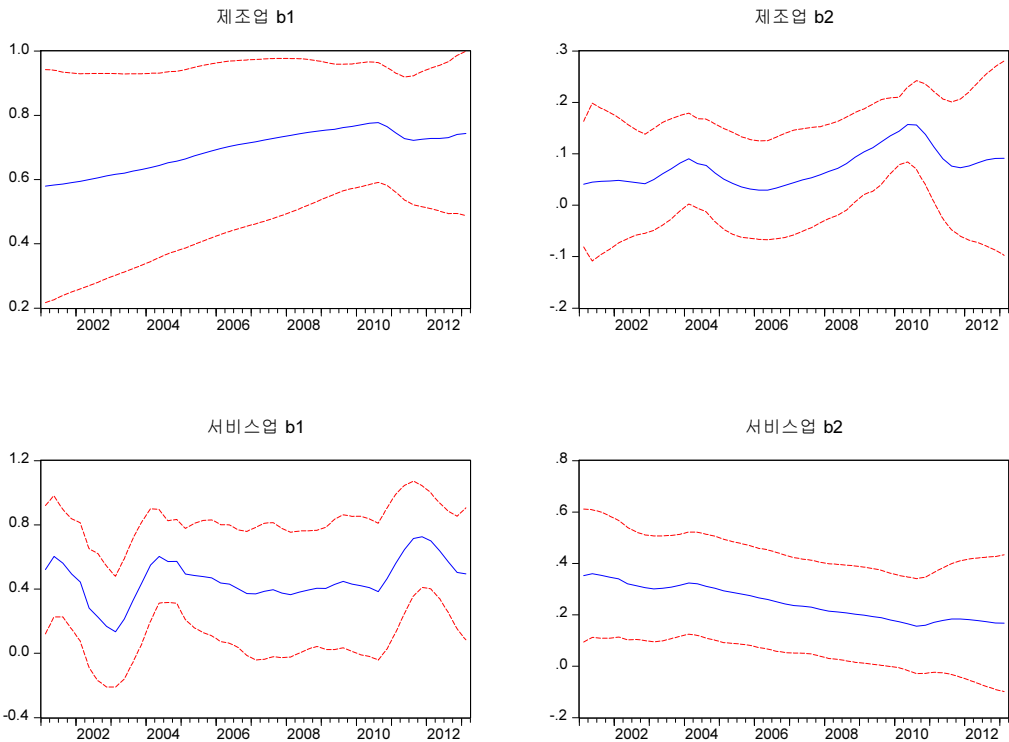


- ◎ 강한 자기상관 통제 시에도 고용·성장 연계 약화
 - 자기상관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식을 추정함.

$$“\text{취업자증가율}(t) = c + b1*\text{취업자증가율}(t-1) + b2*\text{경제성장율}(t) + u(t) ”$$

- 각 산업의 취업자증가율을 전기값과 해당 산업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회귀하되, 회귀계수가 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제조업은 양쪽 계수가 모두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전기값의 계수가 다소 높아졌으나 산업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생산과의 연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다만, 짧은 시계열로 인해 변화의 유의성을 보이기는 어려움)

[그림 11] 부문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 이동회귀계수(좌 : 제조업/우 :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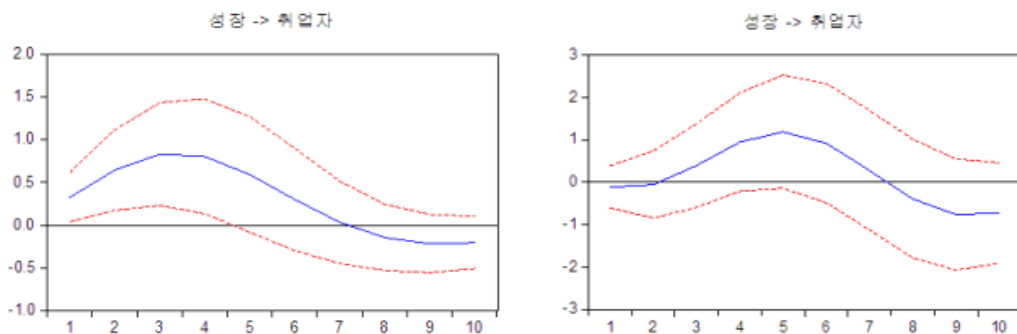


주 : 점선은 매기 상태변수(state variable) 분산에 근거한 ± 1 RMSE(root mean squared error) 구간임.

◎ 서비스업 성장률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 반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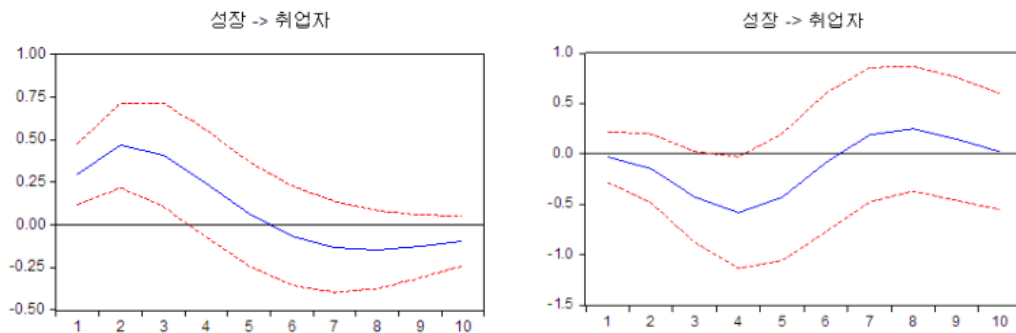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다변량 시계열모형 VAR(2)를 추정하여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충격반응함수(IRF)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반응 강도와 시차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플러스(+)로 반응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존의 유의한 플러스(+) 반응이 2010년 이후 유의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로 역전

[그림 12] 제조업 경제성장률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 충격반응함수(좌: 전기간/우: 2010년 이후)



주: 점선은 ± 2 표준오차 구간임.

[그림 13] 서비스업 경제성장률 충격에 대한 취업자증가율 충격반응함수(좌: 전기간/우: 2010년 이후)



주: 점선은 ± 2 표준오차 구간임.

- ◎ 서비스업의 고용·성장 연계성 약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의 서비스업 편중 현상이나 서비스업 내 특정 고부가가치 산업의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추후 심층적 분석을 통해 규명이 필요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